

교키의 유산

기코지 절은 서민을 돕고 여러 공공시설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 승려 교키(668~749)가 건립한 절입니다. 교키는 만년을 기코지 절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이는 이 절이 교키의 유산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키는 15 살 때부터 도쇼(629~700)라는 영향력 있는 불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승려로서의 수행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도쇼가 사망한 후 교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불교를 설교하고 교량, 관개시설, 진료소 등 공공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나라가 기근과 역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교키는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교키의 이미지는 ‘베푸는 이’였으나 그는 논란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교키는 불교 승려들이 대중에게 불교를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던 국가의 공식 규정을 따르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717년에 겐쇼 천황(680~748)은 교키와 그 신봉자들에게 경고하며 승려는 반드시 사찰 내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칙령을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키는 자선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상당한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교키는 721년에 기코지 절을 건립했습니다.

겐쇼 천황의 후계자였던 쇼무 천황(701~756)은 신봉자를 모으고 다양한 사업의 기금을 모으는 교키의 기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교키에게 도다이지 절의 대불상과 대불전에 필요한 기금 모금을 도와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코지 절의 원래 본당은 교키에게 대불전의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45년, 77 세였던 교키는 가장 높은 불교 승려 계급 대승정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4년 후에 기코지 절 경내에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코지 절은 1998년에 그의 사망 1,250 주년을 기념하여 교키 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교키 상을

안치하기 위한 불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매년 3월 2일에는 교키의 죽음을 기리는 제례가 거행됩니다.